



중국의 강국화 구상과 한반도

이 동 료 (동덕여대)



주요 쟁점

1. 정치: 시진핑 권력집중과 '신시대'의 정치적 의미
2. 외교: 권력 강화가 더 '강경한(assertive) 힘의 외교'를 초래할 것인가?
3. 미중관계: 중국의 부상은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을 우회할 수 있는가?
4. 한중관계: 내실화를 통한 새로운 관계발전은 가능한가?
5. 북핵문제: '중국 역할'? China Passing ?

시진핑 신시대

시진핑 권력 집중의 과정과 내용

✓ 관행으로 부터 이탈

- 시진핑 사상의 조기 黨憲 및 헌법 삽입
-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이탈 논란
- 집단지도체제의 후퇴: 상무위의 시진핑 인맥 구축
- 연령제한 (七上八下) 이탈 논란 : 왕치산의 부주석 임명

✓ 제도를 통한 권력 집중

- 공산당 영도의 헌법 명기
- 헌법의 국가(부)주석 3 연임제한 규정 폐지
- 국가 감찰위원회 신설

시진핑 권력 집중의 의미와 영향

✓ 1인 체제의 구축인가?

- 집단지도체제하에서의 시진핑의 권력 강화 시도.
- 집단지도체제 폐지를 명시적으로 공식화하지 않음.
- 정치국 상무위 7인의 형식적 역할 분업(分工) 체제 유지.
- 연임제한 폐지가 시진핑의 종신 집권을 의미하는가?

✓ 개인 권력의지 vs 구조적, 제도적 권력 강화

- 당대회와 전국인대의 '형식적' 절차와 제도 통한 권력집중
- 강력한 리더십 수요에 대한 黨내 공감대
- 위기 및 공멸의 공감대 / 성취 기대감
- 시진핑의 성패와 공산당 체제의 성패 동일시

정치국 상무위원회(7인)

이름	출생	전직	현직	비고
시진핑(習近平)	1953	정치국상무위원/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위 주석	좌동	유임
리커창(李克強)	1955	정치국 상무위원/국무원 총리	좌동	유임
리잔수(栗戰書)	1950	정치국원/중앙 판공청 주임	전국인대 위원장	신임
왕양(汪洋)	1955	정치국원/국무원 부총리	전국정협 주석	신임
왕후닝(王滬寧)	1955	정치국원/중앙정책연구실주임	중앙서기처 상무서기	신임
자오러지(趙樂際)	1957	정치국원/조직부 부장	중앙기위 서기	신임
한정(韓正)	1954	정치국원/상하이 당서기	국무원 상무 부총리	신임

시진핑 '신시대'의 과제: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과 지속성 확보

✓ 고도성장 신화의 종료(new normal):

- '더 나은 삶(美好生活)' 실현
- 공동부유(共同富裕)
- 신 성장동력의 확보

✓ 공산당 집권 정당성과 안정성의 도전

- 정치개혁 없는 당 체제 강화의 딜레마. 역주행의 부작용
- 시진핑 '신사상'과 업적이 시험대에 오름
- 당 영도 강화, 권력집중, 반부패 캠페인, 빈곤퇴치, 민족주의
- 코로나 19로 공산당 체제의 누적된 내재적 문제 노출
- 정치 권위주의, 경제 자유주의, 대중 민족주의의 혼재

중국 '신시대' 강국화 플랜: 兩個百年

- ❖ 중국의 꿈(中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 '100년 치욕의 역사' 극복
- ✓ 2020(창당 100주년 2021):
 - 小康社會의 전면적 실현
 - **코로나 19 충격으로 부상 플랜 차질 불가피**
- ✓ 2035:
 -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 ✓ 2050(건국 100주년 2049):
 - 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중국 '신시대' 부상 일정: 단기플랜

- ✓ 2018: 개혁개방 40주년
- ✓ 2019: 5.4 100주년/ 건국 70주년/ 중미수교40
(라사 사태 60년/중소분쟁 50년/6.4. 30년)
- ✓ 2020: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
- ✓ 2021: 공산당 창당 100주년
- ✓ 2022: 20차 전국대표대회

중국 민족주의 과잉의 문제: 양날의 칼

✓ 국내 문제

- 체제 통합과 정당성 확보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계
- 동원 민족주의로서 통제의 지속성 문제
- 대중 민족주의 기대 과잉과 광장정치 등장 가능성
- 소수민족의 인종 민족주의 자극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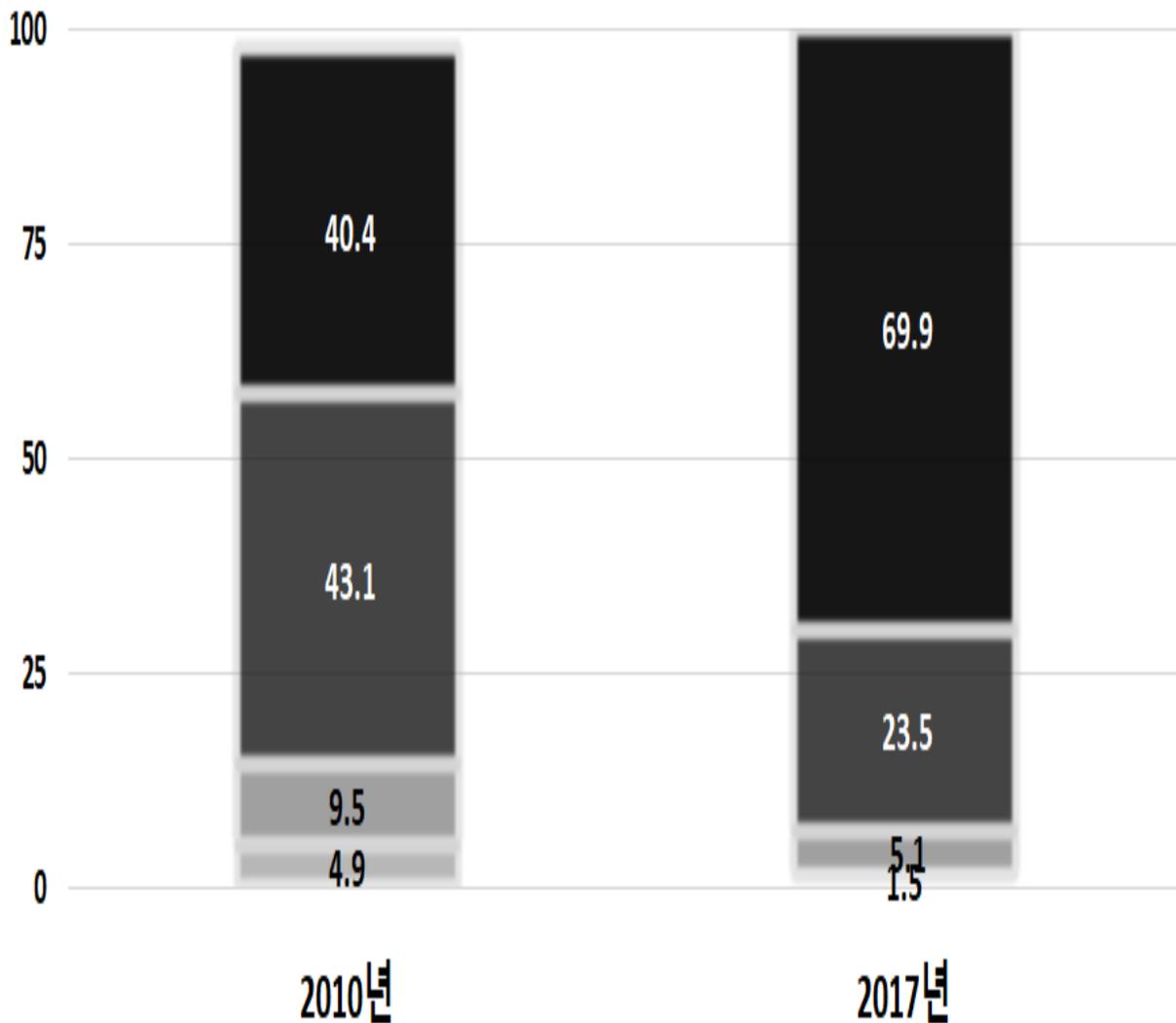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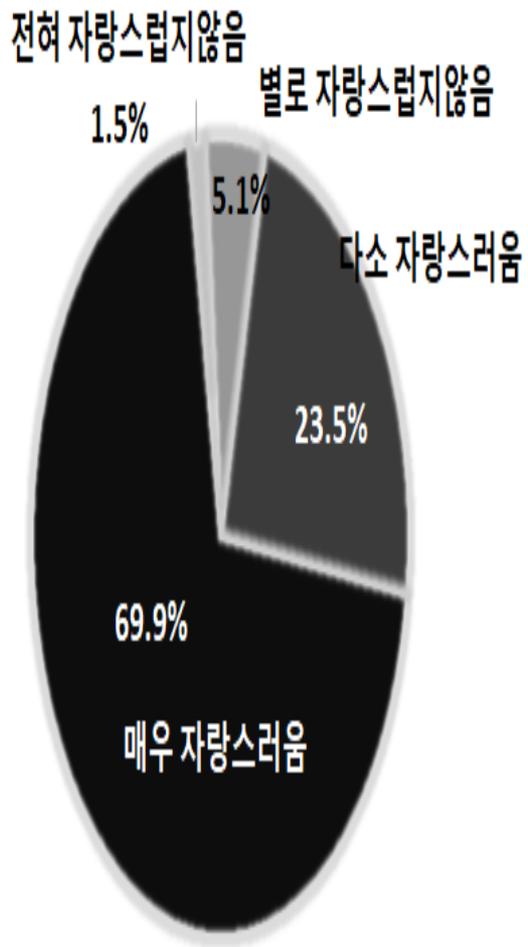
✓ 외교 문제

- 중국위협론, 반중국 정서의 확산
- 영토, 주권이슈에서의 외교 유연성 제약
- 일대일로, 운명공동체 등 외교 전략과의 상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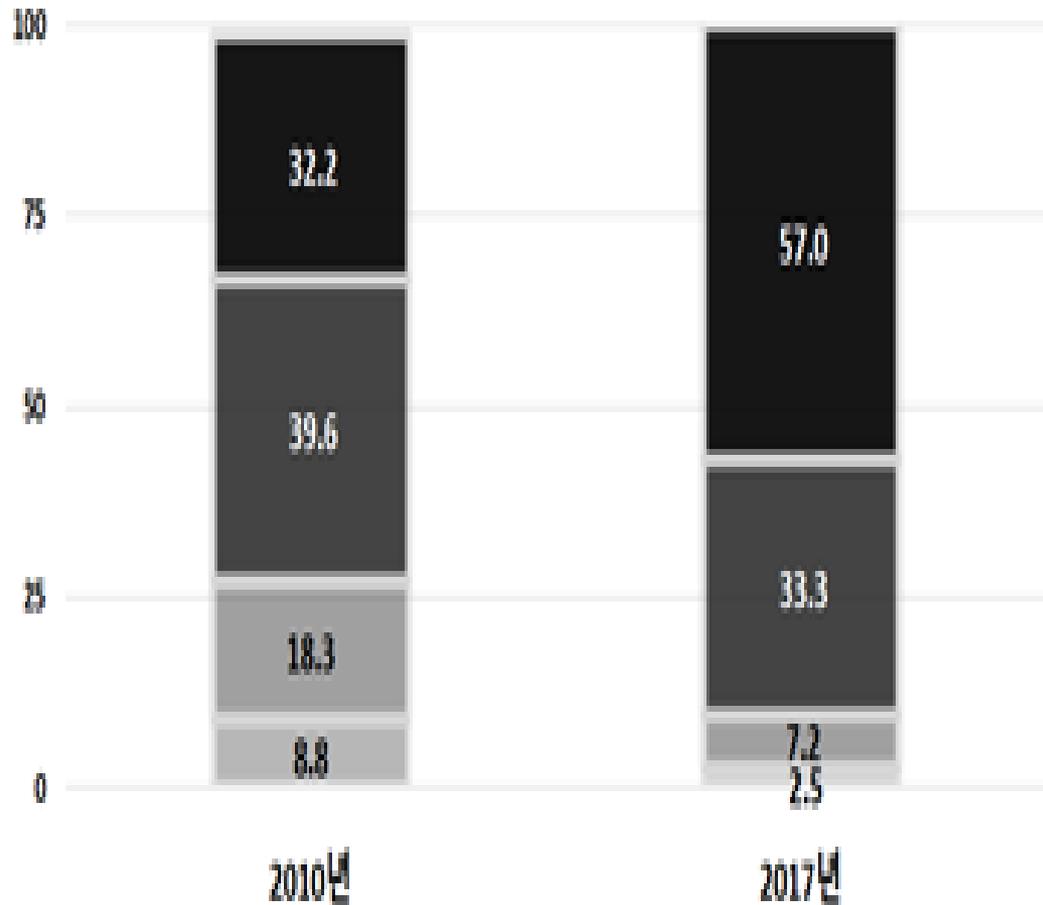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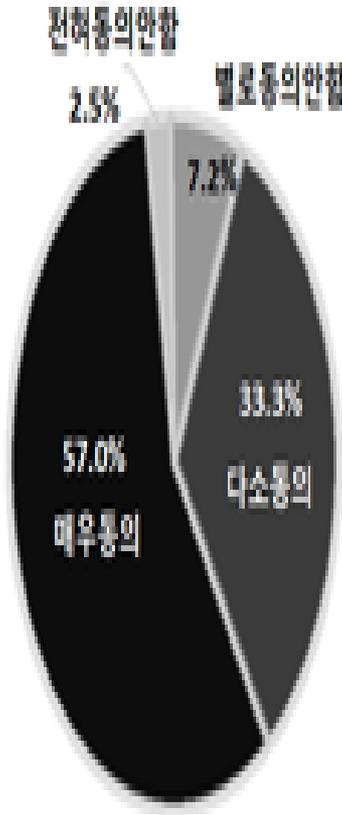
✓ 왜 국가민족주의가 동원 되는가?

- 체제 통합과 통치 이데올로기의 취약,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중국이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리더 국가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코로나 19가 초래한 도전

✓ 중국발 펜데믹으로서의 책임론

- 발원지로서 초기 대응 실패의 책임 논란

✓ 공산당의 신뢰,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상흔

- 시진핑 체제의 과도한 권력집중의 경직성 노출
- SNS 등을 통한 사회 저변의 불만 및 역량 확인

✓ 강국화 플랜의 차질

- 기존 성장률 하락 추세에 기름 부은 상황
- 창당 100년 일정 차질, 시진핑 장기집권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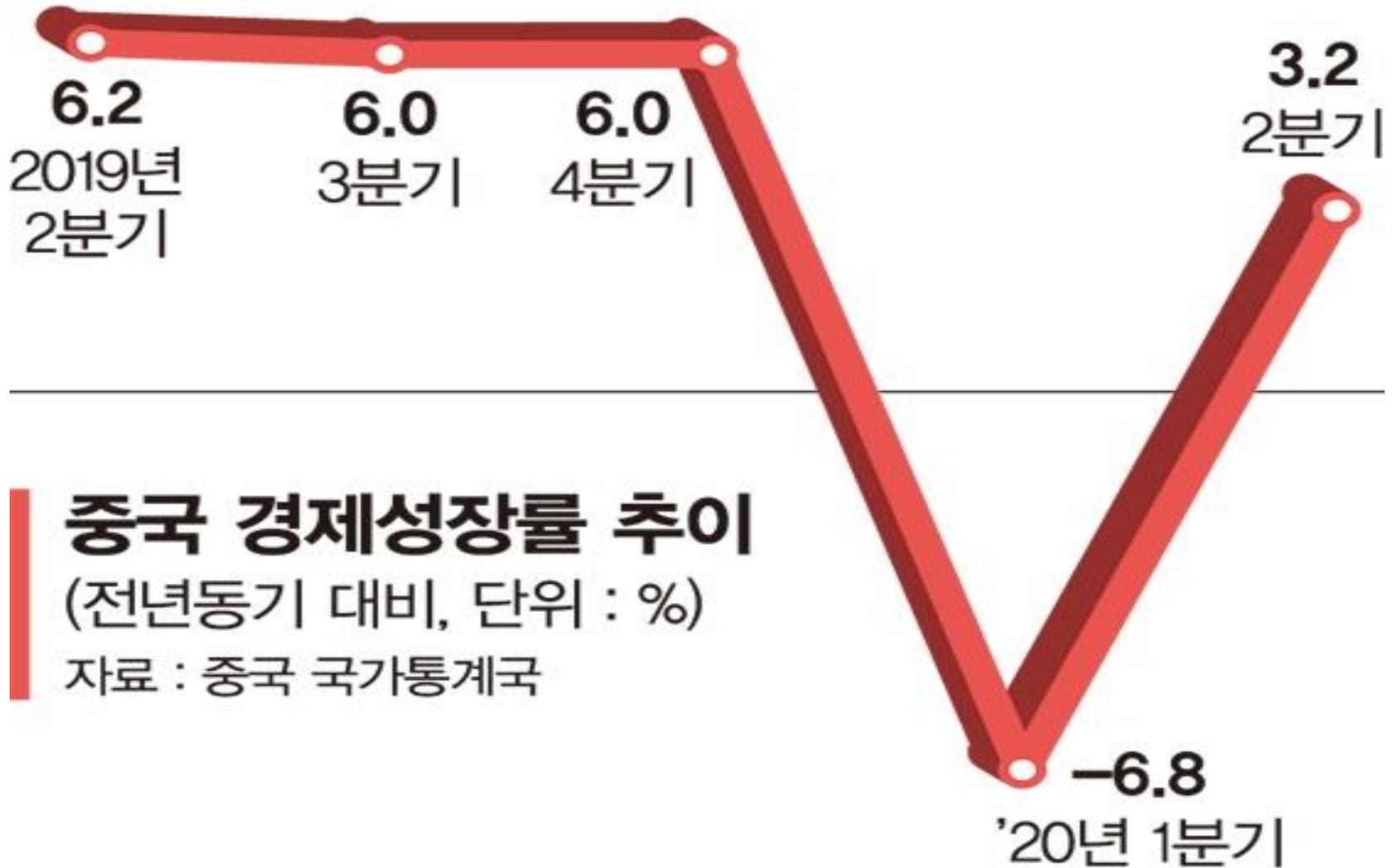
✓ 국제사회의 반 중국 정서의 확산

- 세계적 반 중국 연대 조성에 대한 우려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면적 공세

- 세력경쟁으로 확장에 대한 우려

코로나 19 충격,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전년동기 대비, 단위 : %)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시진핑정부의 외교

중국특색의 대국외교(中国特色的大国外交)

- ✓ '두 개의 구축'(两个构建):
 -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 ✓ 중점 실행 전략:
 - 일대일로(一帶一路): '해양강국'의 대체재?
 -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revision state ?
- ✓ 핵심이익 수호: 주권, 안보, 발전 이익 (국가통합 미완성)
- ✓ 외교 담론의 과잉
 - 부국강병론 논조 지속, 중국 견제와 위협 인식 초래
 - 글로벌 보편성의 결여

시진핑 대국 외교의 도전

- ✓ **강국화의 전략적 기회 실현을 위한 시·공간의 확보**
 - 저비용의 국제관계, 국제위상 제고, 핵심이익 수호 **Trilemma**
- ✓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의 우회**
 - 미국의 견제, FOIP 전략.
 - 지경학적 부상 추진 (일대일로)과 도전
- ✓ **주변 정세 안정과 관리**
 - 14개 육지 접경국, 6개 해양 인접국을 지닌 지리적 특수성
 - 대만 및 홍콩 문제의 관리, 국경안정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리
- ✓ **민족주의 과잉 관리**
 - 중국 부상 열망과 기대에의 부응/ 체제 정당성
 - 주권 및 영토 이슈에서의 융통성 제약/ 위협론 확산
- ✓ **권력 집중의 제약: 정층설계(頂層設計)의 효율성과 경직성**

중국의 인접 국가

(국경선 길이, km)



- | | |
|---------------|----------------|
| ① 몽골(4710) | ⑧ 북한(1334) |
| ② 러시아(4354) | ⑨ 키르기스스탄(1096) |
| ③ 미얀마(2000) | ⑩ 부탄(600) |
| ④ 인도(1700) | ⑪ 파키스탄(500) |
| ⑤ 카자흐스탄(1753) | ⑫ 라오스(500) |
| ⑥ 네팔(1415) | ⑬ 타지키스탄(400) |
| ⑦ 베트남(1347) | ⑭ 아프가니스탄(92) |

중국의 상대적 부상 과정: 전략적 기회

-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 지역 '책임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기초 형성
- ✓ **2001년 9.11 테러**
 - 아태지역에서 중국 부상의 시공간 제공
 - WTO 가입
- ✓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 경제 강국(G2) 로 부상,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 축소
- ✓ **2016 트럼프 변수 ?**
 -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중국 부상의 새로운 기회?
 -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서 **절대적 부상 시대** 도래
- ✓ **2020 코로나 19 변수 ?**
 - 공산당 일당 체제의 효율성? 마스크 외교의 성취?
 - **중국발 위기**, 중국 체제 안정과 정당성 위기 직면

시진핑 대국 외교의 새로운 과제

- ✓ 외교 목표와 방향 설정의 岐路
 - 공산당 일당 체제 유지, 국제 영향력과 위상 증대
 - 지역 패권국, 글로벌 패권국
- ✓ 코로나 19가 초래한 국내외의 다양한 도전 극복
- ✓ 상대적 부상에서 절대적, 독자적 부상의 새로운 길
- ✓ 글로벌 보편 가치, 표준, 규범의 생산
- ✓ 국제 제도와 기구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십
- ✓ 소프트 파워 강화

코로나 19 대응 외교의 과제

- ✓ 외교 목표와 방향 설정의 岐路
 - 공산당 일당 체제 유지, 국제 영향력과 위상 증대
 - 지역 패권국, 글로벌 패권국
- ✓ 코로나 19가 초래한 국내외의 다양한 도전 극복
- ✓ 상대적 부상에서 절대적, 독자적 부상의 새로운 길
- ✓ 글로벌 보편 가치, 표준, 규범의 생산
- ✓ 국제 제도와 기구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십
- ✓ 소프트 파워 강화

일대일로 추진의 배경

- ✓ **신창타이 (新常态, New Normal) 시대의 신성장 동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잉투자, 공급 문제 해결
- ✓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소**
 - 중서부지역과 인접 신흥개도국과의 경제적 연계
- ✓ **석유와 가스 공급선의 다변화: 차항출해(借港出海)**
 - 말라카 딜레마의 해소, 에너지 공급처와 수송로의 미국 봉쇄
- ✓ **3차 대외개방(1978, 2001, 2013)**
 - 내륙 및 국경개방/주변 신흥개도국/인프라건설투자
- ✓ **신형 주변외교를 통한 부상의 국제환경 조성**
 - 친성혜용(親誠惠容)의 운명공동체 수립
- ✓ **지역 경제통합을 통한 중국의 경제 영향력 확장**
- ✓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과 역량 강화**

차항출해(借港出海)



일대일로로의 쟁점

✓ Strategy or Initiative

- OBOR 에서 BRI

✓ '獨奏' or '합창'

- 개방, 포용, 투명, 책임, 공평

- 인구63%/GDP29%/수출23.9%/ 65+, 전세계

✓ New International Order or Public Goods

- AIIB의 역할: '대체' or '보완'

✓ 지정학(geopolitics) or 지경학(geo-economics) 접근

✓ 유라시아 New Great Game or 서진(西進) 전략

일대일로외 도전과 과제

- ✓ 외교적 신뢰 확보와 연선국가들의 참여 견인
 - 중국판 *Marshall Plan*(?)
 - 중앙아시아 국가와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 경계
 - 연선국가들과의 영토 분쟁 (인도, 아세안 등)
- ✓ 연선(沿線)국가들의 정치 불안
 - 정치권력의 불안정/ 인종, 민족 갈등, 테러/ 부채의 덫
- ✓ 강대국의 견제와 경쟁
 - 미국, 일본: 인도 태평양 구상, 항행의 자유 작전
 -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EEU)
 - 인도: 일사일로(一絲一路) 구상
- ✓ 국내 제약: **시진핑 Agenda**, 출구 모색의 한계, 성장동력?

일대일로 변형

✓ 대상의 진화

-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중심에서 65+의 연선국가 대상
-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를 포괄하는 전세계

✓ 추진 목적의 변형

- 국내 성장동력 - 연선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 국제사회 공공재 제공
- 미국 FOIP와의 경쟁 - 방역 외교를 통한 국제 우군 확보

✓ 코로나 19의 영향

- 부채의 덩어리 논란 및 세계화 쇠퇴
- 전세계적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 확산
- 마스크 및 방역 외교 시도 불구, 효과 미흡
- 효과 없는 소모적 지원 정책 가능성
- 코로나 이후 개도국의 수요 회복 가능성

국제질서 보완, 개혁, 대체 ???

✓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의 강화

- 저항국-소극적 참여-무임승차-적극적 참여
- 주도국으로의 진화: "다자주의의 적극적 주도"(2005),
- G20 정상회의(2008)
- 대륙 국가에서 대륙 해양 복합형 국가로의 진화.

✓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주장

- AIIB(2013), NDB(2014), CICA

✓ 대안 국제질서 부재

- 중국 꿈, 중국방안의 글로벌 보편성?, 글로벌 리더십의 한계

시기	외교 담론의 진화	국제체제 참여 추이	주요 역사 사건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화외교 (現代化外交) ○ 독립자주외교 (獨立自主外交, 1982) 	IMF, WB (1980) ADB (1986) GATT가입신청(1986)	개혁개방(1978) 천안문사건(1989)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극화(多極化) ○ 동반자외교(伙伴外交) ○ 책임대국 (負責任的大國, 1997) 	ARF (1994) CTBT (1996) 사회적 규약(1997)	남순강화 냉전종식(1991) (南巡講話 1992) 아시아금융위기(1997)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굴기 (和平崛起, 2003) ○ 평화발전 (和平發展, 2004) ○ 조화세계 (和諧世界, 2005) 	중-아프리카협력포럼 (2000) WTO, SCO, 보아오포럼(2001) 북핵 6자회담(2003) G20 (2008)	9.11 테러(2001) 세계 금융위기(2008) 베이징올림픽(2008) 상하이엑스포(2010)

시진핑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中國特色的大國外交 2014) ○ 두 개의 구축 (兩個構建): -신형국제관계 (新型國際關係 2013) -인류운명공동체 (人類命運共同體 2013) ○ 글로벌거버넌스 체제개혁 (全球治理體系變革 2014) 	일대일로(一帶一路 2013) AIIB, NDB (2014)	트럼프 정부의 등장(2016) 중국헌법 개정: 국가주석 3연임 제한 규정 삭제(2018)
-------	--	-------------------------------------	--

미중관계

미중 관계 전개 양상

➤ 갈등, 경쟁, 협력이 공존하는 복합적 관계

- 기존 질서에서의 복합관계 or 질서 건축 경쟁

➤ 갈등: 통상, 대만, 티벳, 인권, 환율, 에너지, 기후변화, 기술표준

➤ 경쟁:

- 경제(제도): TPP, ADB, IMF / RCEP, AIIB, NDB, BRI / FOIP

- 군사: 반접근, 지역거부(A2, AD) / 공해전투(AirSea Battle)

- 규범과 가치: 워싱턴 컨센서스 / 중국모델, 신발론

➤ 협력: 경제적 상호의존, G2 시대, 지역 및 글로벌 이슈

➤ 중국의 지경제학 부상과 미국의 지정학 견제

➤ 미중의 '편가르기식 대리 세력 경쟁'

중국의 대미 전략 기초: '신형대국(국제)관계'

- ✓ **중국이 처음으로 미중관계의 방향 제시**
 - 시진핑 부주석 미국방문(2012, 12)시 제안
 - 19차 당대회(2017)에서 신형국제관계로 확장
- ✓ **不冲突, 不對抗, 相互尊重, 合作, 共贏(Win-Win)**
- ✓ **미국과의 직접 충돌 우회를 통한 중국 부상 실현**
 - 미국과의 갈등 불가피하지만 불필요한 확장 회피
- ✓ **트럼프 발 불확실성, 불가측성 변수**
- ✓ **'핵심이익' 수호의 딜레마**

중국의 대미 전략

- ✓ **글로벌 차원: 체제내의 제한적 경쟁과 갈등 관리**
 - 성급한 세력 재편과 영향력 확대 자제
 - 미국과의 불필요한 갈등 전선의 확대 방지
 - 통상 분쟁: 공식적으로는 강경 입장, 수면하에 협상진행
 - 내부 체제 통합과 지지 유도 위한 저강도의 경쟁과 갈등 활용
- ✓ **지역 차원: 핵심이익 수호와 역내 영향력 확대**
 - 온건한 방식으로 역내 영향력 확대
 - 체제, 영토, 주권, 등 핵심이익에 대해서 전략적 강제수단 동원
 - 시진핑 체제의 특성상 미국에 대한 일방적 양보 제약
- ✓ **주변외교와 다자외교 활성화를 통한 미국 압박 대응**
 - 주변국들의 대중 균형전략 저지, 헤징전략 수용
 - 주변국 견인을 위한 경제 수단 + α

코로나 19 영향, 대미 인식과 전략 변화

✓ 미국 공세에 대한 인식 변화

- 코로나 책임론을 넘어 체제에 대한 공세로 인식
- 수교 이후 최악의 미중관계로 판단
- 세력경쟁, 신냉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 시작
- 전세계적 '탈중국화', '반중국' 의 국제연대 조성 추진

➤ 중국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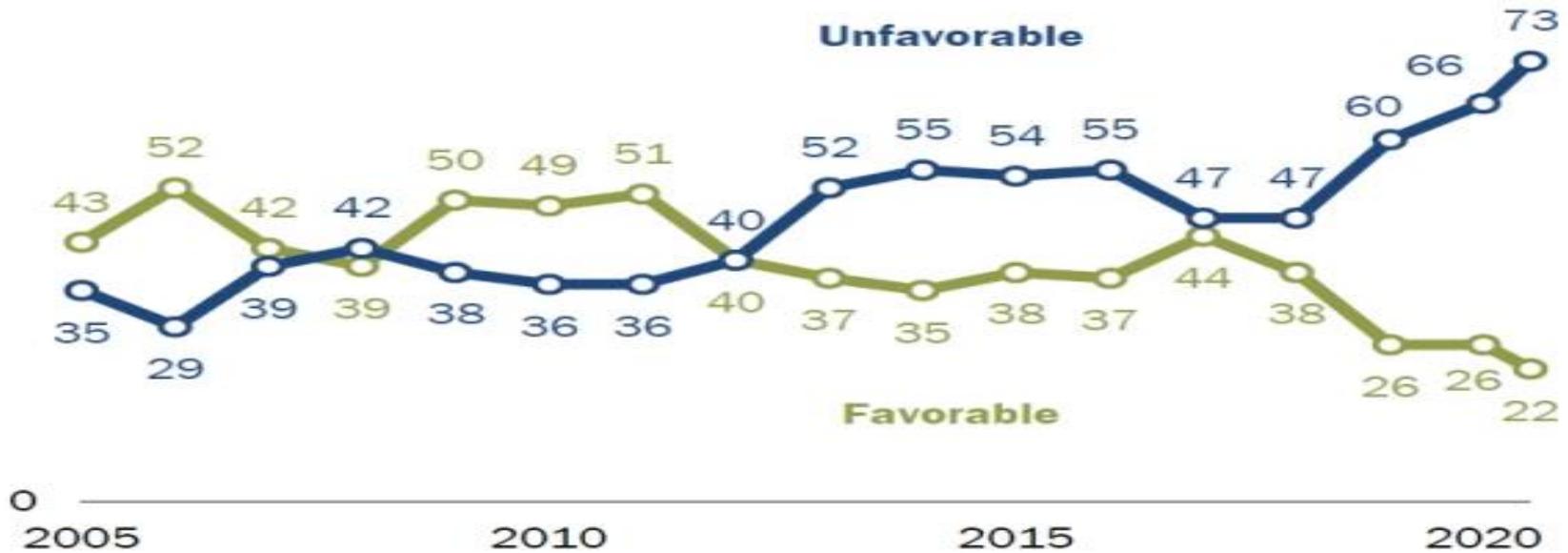
- 미국 대선, 코로나 상황 등 불확실성 관리, 신중한 대응
- 시진핑 체제 및 핵심이익 압박시 Tif for Tat식의 맞대응
- 국제적 반중국 연대 형성 저지를 위한 전방위 외교
-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세적 외교 자제 논의
- 미국과의 경쟁 장기화 대비, 내부 체제 단속과 역량 강화 집중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new highs in U.S.

% who say they have a(n) ___ opinion of China

100 %



Note: Don't know responses not shown.

Source: Survey of U.S. adults conducted June 16-July 14, 2020. Q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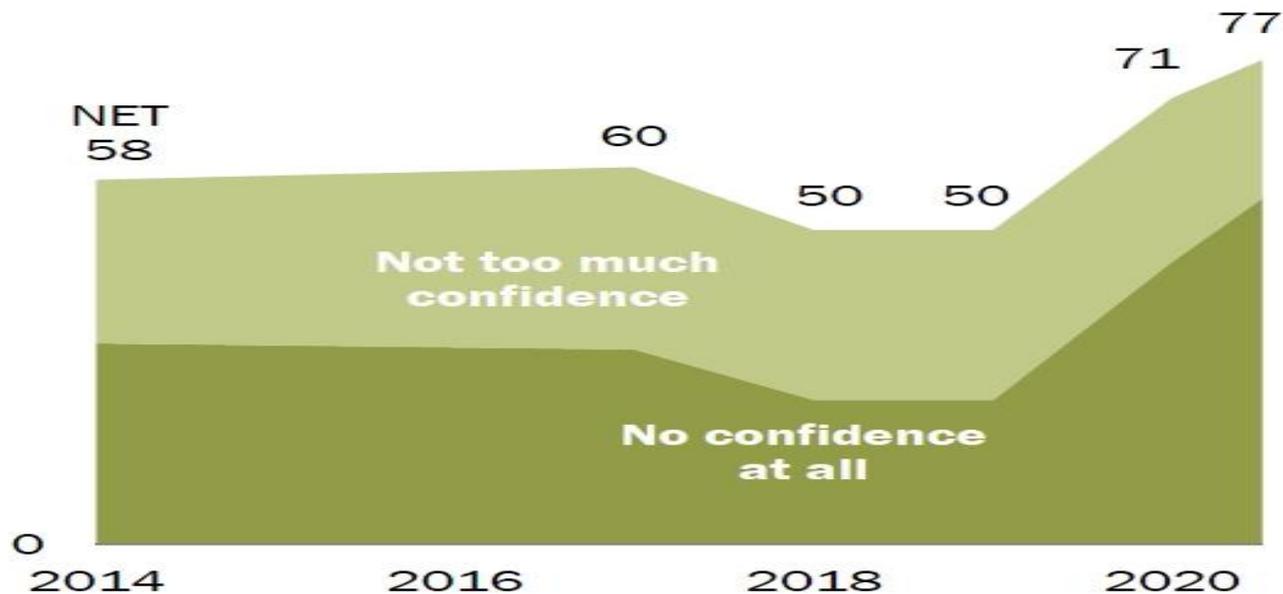
"Americans Fault China for Its Role in the Spread of COVID-19"

미국의 시진핑에 대한 신뢰

Americans continue to lose faith in Xi

% who say they have ___ in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to do the right thing regarding world affairs

100%



Source: Survey of U.S. adults conducted June 16-July 14, 2020. Q15b.

"Americans Fault China for Its Role in the Spread of COVID-19"

PEW RESEARCH CENTER

포스트 코로나, 미중 갈등의 새로운 양상

✓ 미중 본격적 패권 경쟁 진입의 기로

- 미국 전반의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와 부정인식 팽배
-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본격적 압박과 공세
- 트럼프 vs 시진핑의 국내 정치 리더십의 취약성 영향
- 미중 양국 모두 내부 정치경제 난제 직면
- 미중 대립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와 피로감

✓ 글로벌 리더십의 전반적 쇠퇴, GO 시대(?)의 도래

- 팬데믹의 지구적 위기, 강대국 자국 방역을 위한 봉쇄 집중
- 미중 경쟁과 갈등은 통상분쟁부터 철저한 국익경쟁
- America First vs. 中國夢 경쟁, 글로벌 리더십 경쟁 약세

✓ 세계화의 쇠퇴와 각자도생 추이

- 전세계적 경제의존의 약화, 국제협력 제도와 기구의 약세
- 미중의 '줄세우기' 압박과 설득 가중, but 陣營 구축의 한계
- 중견국의 저항 및 연대의 힘 발휘 가능성 증대
- 중견국 한국의 힘 ?

주요국 글로벌 리더십 지지율

주요국 글로벌 리더십 지지율 변화 단위: %, 자료: 갤럽



한중관계

한중관계 28년

- ✓ 비정상적 밀월관계: 政冷經熱, 外華內貧, 同床異夢
- ✓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한중관계의 비대칭성 심화
- ✓ 외생변수 (국제정세와 환경) 영향에 취약 (2008년)
 - 양자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관계로 급격히 전환
 - 한중관계가 중국의 대미, 대일외교의 종속변수
 - '역대 최상의 관계' 대 '중국경사론' (2015년)
- ✓ 역사와 지리의 영향
 - 역사: 事大, 反共, 시장주의
 - 지리: 이웃증후군에 따른 착시와 왜곡
 - 상호 이해 부족, 왜곡, wishful thinking

한중 수교의 쟁점

✓ 한중 양국의 상이한 수교 동기, 수교 주도는 ?

- 한국(북방정책) vs 중국(미국변수, 주변외교)

✓ 조급한 수교 협상?

- 19년(1973 6.23)/ 4개월 (1992.4.13)/ 2개월 (5.13-7.29)/ 8.24

✓ 북한 문제 ?

- 교차승인, 북중관계 악화, 북핵

한중 수교 협상의 유산과 교훈

✓ 수교의 初心: 전략적 同床異夢

- 상이한 수교 동기(통일, 안보 vs 경제, 무역)
- '북한문제' 에서 '중국역할' 기대 잉태
- 대중 외교에서 북한이슈의 과잉 현상 초래

✓ 외교의 국내정치 영향:

- 수교 협상의 내부 주도권 경쟁: 외교부, 청와대, 秘線
- 수교의 정치적 활용, 임기내 완료.

✓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정책 기조:

- 한반도 안정, 전략적 완충지역, Two Korea 정책

한중관계 발전과정 外華內貧의 밀월관계'

한중 수교
(1992)

- 鄧小平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의 선린외교 (20여 국가와 수교)
- 천안문사건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
-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1991)

睦隣友好
(1994)

- 李鵬(1994), 喬石, 江澤民 방한(1995)
- MFN 연장문제(1993), 북미기본합의서(1994)

面向21世紀合作伙伴關係
(1998)

-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
- 중국은 15차 당대회(1997) 江澤民 체제를 공고화
- 미일 신안보조약 체결/ 아시아 금융위기 (1997)

全面合作伙伴關係
(2003)

- 7월 노무현 대통령 방중
- 9.11 테러 /WTO 가입
- 16차 당대회 (2002) 胡錦濤 체제가 출범
- '책임대국', '평화굴기', '평화발전론' 부상 과시

戰略合作伙伴關係
(2008)

- 5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
- 2기 후진타오 체제 출범 (2007)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세계금융위기
- 천안함사건(2010)/ 미국의 재균형전략(2011)

한중 관계 발전(악화) 요인

구조적 요인

역사, 문화, 지리

- 韓流 漢風
- **혐한, 혐중**

국제 환경 요인

미중관계, 북한 요인

- 미중간 경쟁적 협력
- 북핵위기의 공감대
- **미중 경쟁/ 북중강화**

기능적 요인

경제 요인

- 상호 보완성. 시장
- **China Risk**

한중 관계 外華內貧의 배경

✓ 外華

- 경험 및 인적 교류 중심의 단기간의 비약적 성장
- 중국의 부상, 미중 경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
-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격상 (국내정치에 동원)

✓ 外華에 대한 의존,

- 갈등, 봉합, 회복, 재 갈등의 기복 반복
- 08후 롤러코스터 기복: 격상-악화-회복-최상-최악-봉합-?

✓ 內貧의 기회 상실 및 동기 약화

- 2013. 4개 전략대화 신설, 개점휴업, 효용성 의문

한중의 전략적 同床異夢

✓ 한국의 異夢 : 대북 및 통일 외교

- 진보 정부: 남북 협력과 북한 개방 설득의 중국 역할 기대
- 보수 정부: 북한 압박, 봉쇄의 중국 역할 기대와 요구
- 한반도 통일, 평화체제 수립에 중국의 '긍정적' 역할 기대

✓ 중국의 異夢 : 대미 외교 및 주변외교

- 미국의 대 중국 공세의 방패, 완충 역할 기대
- 한미 동맹의 약화 기대: "동맹은 역사의 유물 "
- 주변 안정을 위한 한반도의 현상유지

한중 관계 외생 변수의 영향 확대

- ✓ 2008년 이후 중국의 가파른 부상
- ✓ 미중 경쟁과 갈등의 구조화, 복잡화
- ✓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ICBM 발사
- ✓ 중국 역할의 요동

- 중국역할- 중국경사- 중국책임- 중국압박- 중국소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합의

지역적, 세계적 차원으로의 협력 범위 확대

군사, 안보분야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 분야 확대

중장기적 비전을 통한 발전 지향

관계 격상

VS

빈그릇론

한중 전략적 관계의 과제와 한계

- ✓ 전략적 관계 격상후 전략적 이슈 갈등
 - ✓ 북한 문제에 대한 異夢
 -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한 갈등
 - 선 북핵 폐기 vs. 선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
 - ✓ 한미동맹에 대한 異夢
 - 중국 외교부 대변인(2008): '한미동맹은 역사의 산물'
 -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을 둘러싼 미중 갈등으로 비화
 - 한미동맹 이슈의 미봉, 잠복

한중 최상의 관계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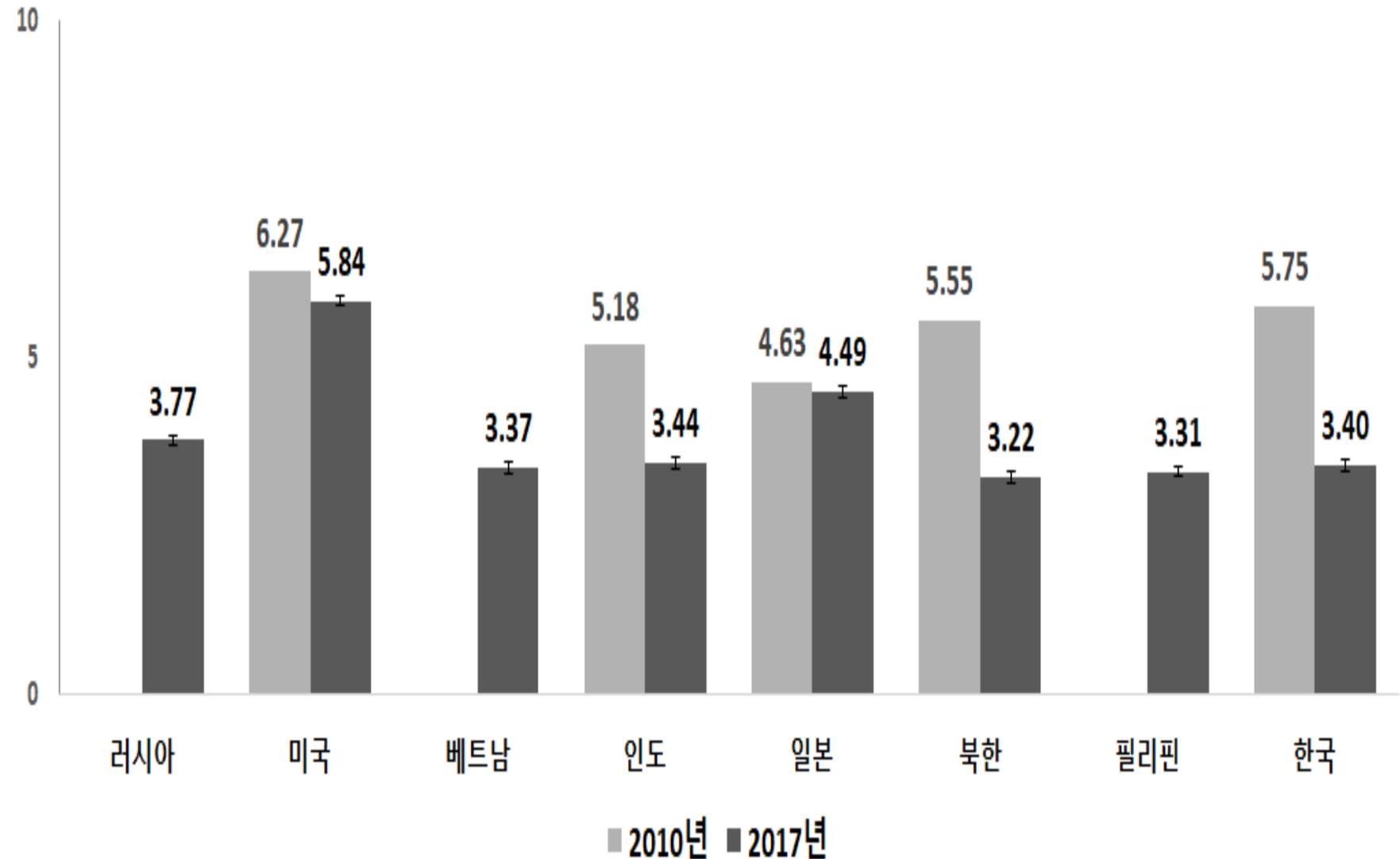
- ✓ **한중 정상회담(2013/2014) 배경**
 - 한중 양국 새로운 정부의 동시 출범
 - 중국의 공세적 외교의 조정 과정
 -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과 불확실성의 증대
 -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일관계 악화
 - 전략적 同床異夢 (통일대박 vs 한미동맹 약화)
- ✓ **2013 방중 (방일 前) / 2014 방한 (방북 前)**
- ✓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성숙화'**
- ✓ **주요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 창출**
 - 청와대 안보실장/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한중 관계 급락: THAAD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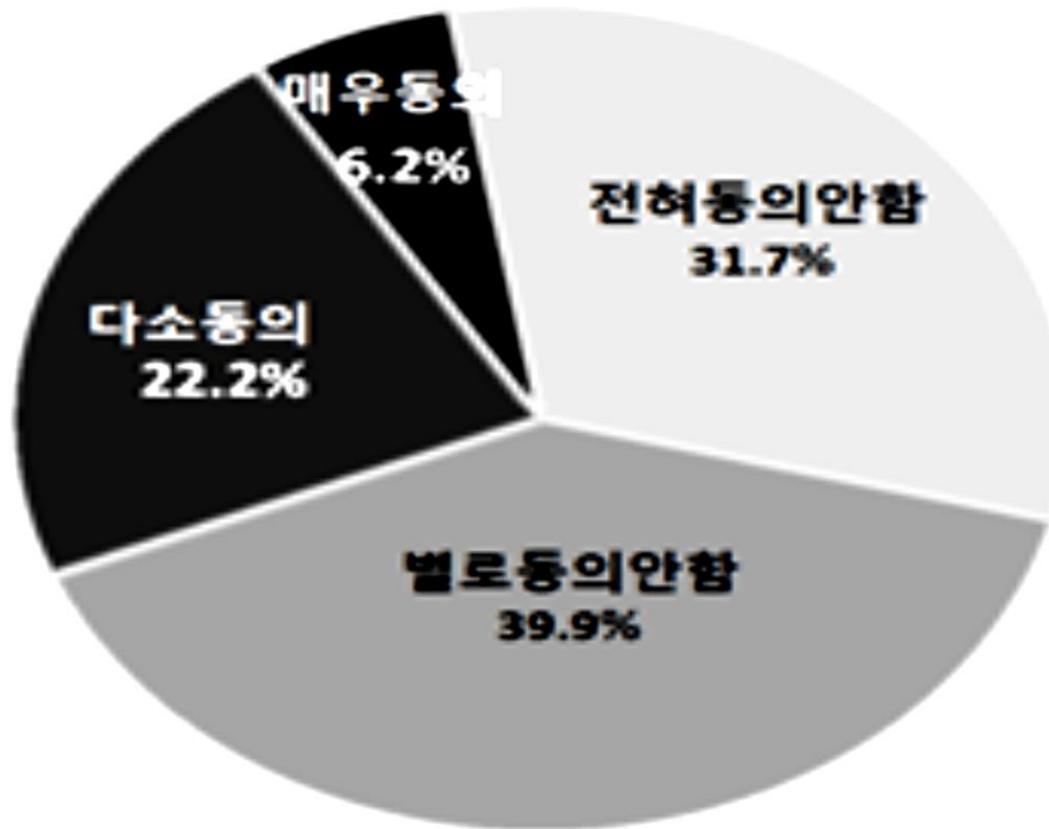
최상의 관계에서 최악의 관계로

- ✓ 전략적 동상이몽과 외생변수예의 취약성 노정
 - 4차 북핵실험(2016) - THAAD 배치(2017) - 중국 경제 보복
 - 한국 (북핵 위협 억지) / 중국 (미국의 중국 견제)
- ✓ 內貧의 현실 확인
 - 頂上간 관계 악화, 모든 대화의 단절
 - 갈등, 위기시 작동할 수 있는 채널과 창구 부재
- ✓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초래한 도전:
 - 의도치 않은 전략적 선택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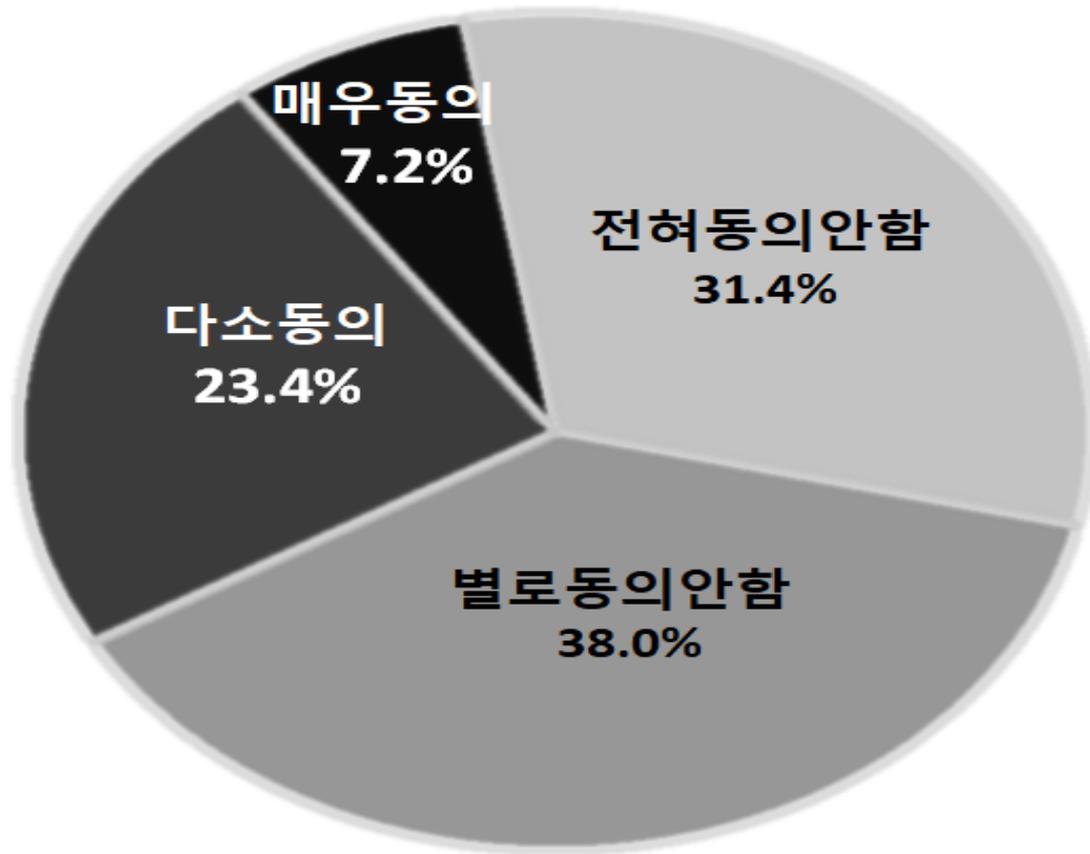
중국의 국가별 호감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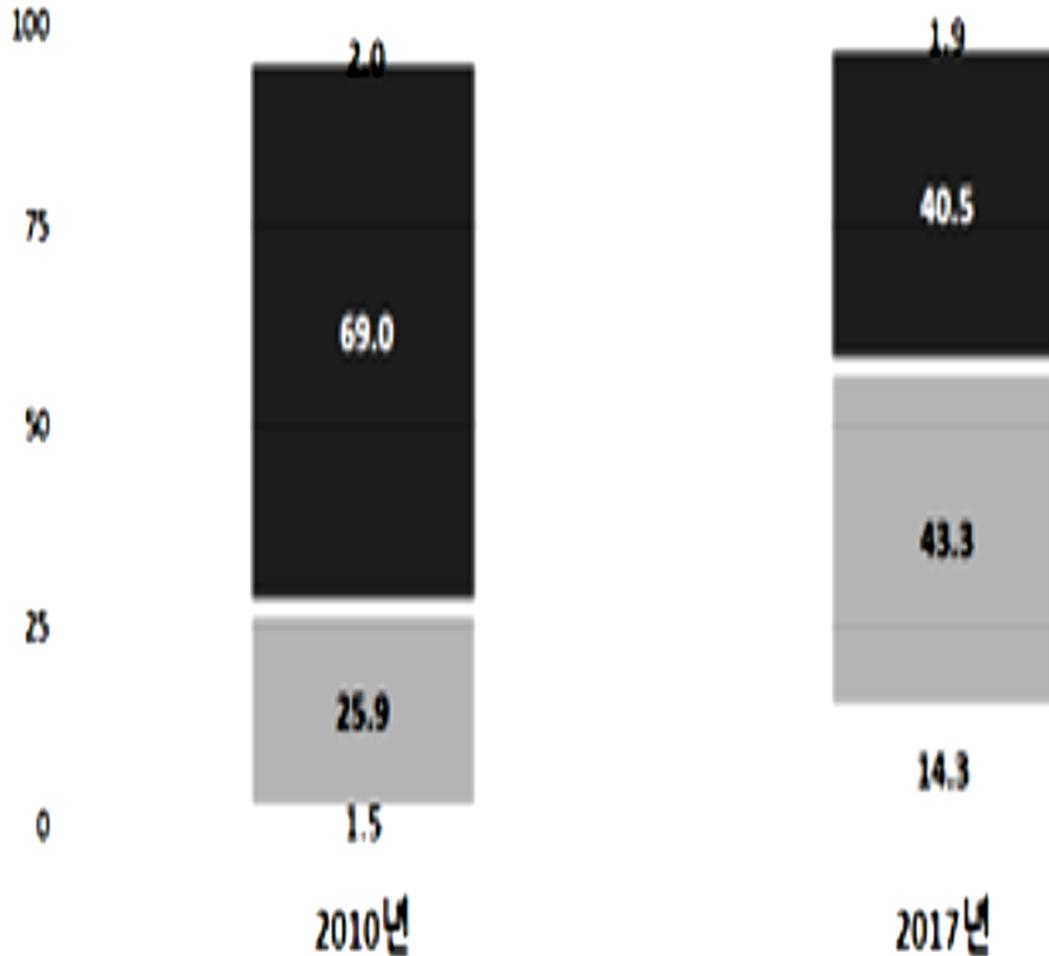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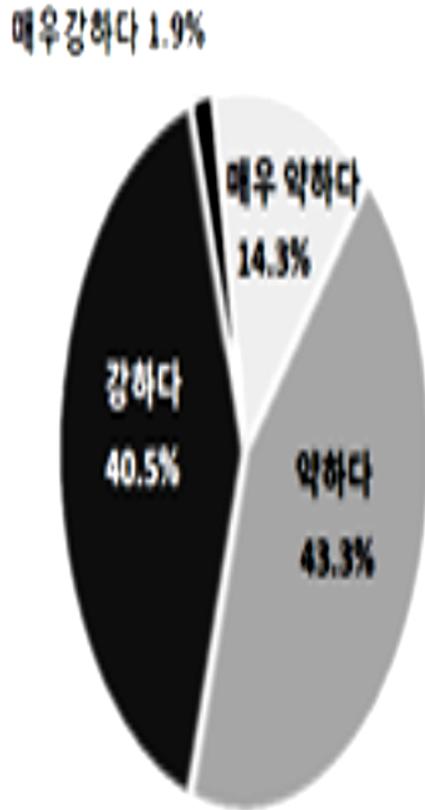
한국은 중국과 우호적 관계에 있다



한국인의 중국인 존중여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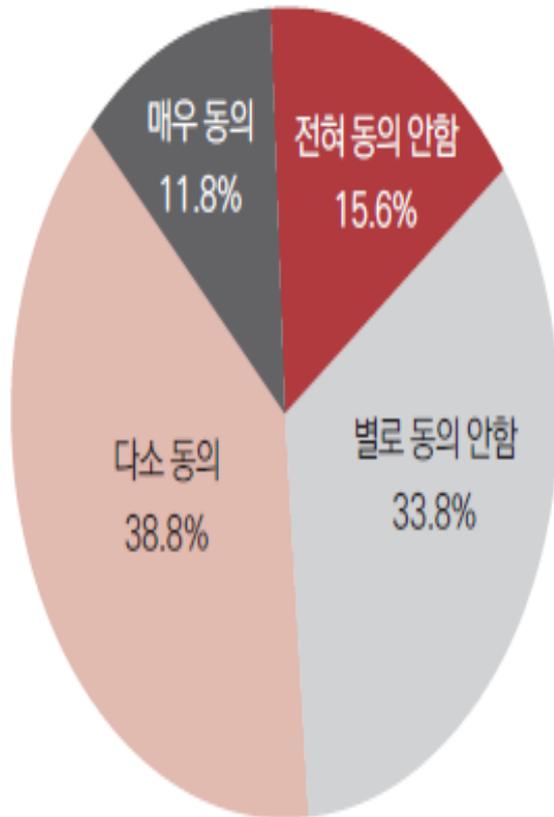


한국의 국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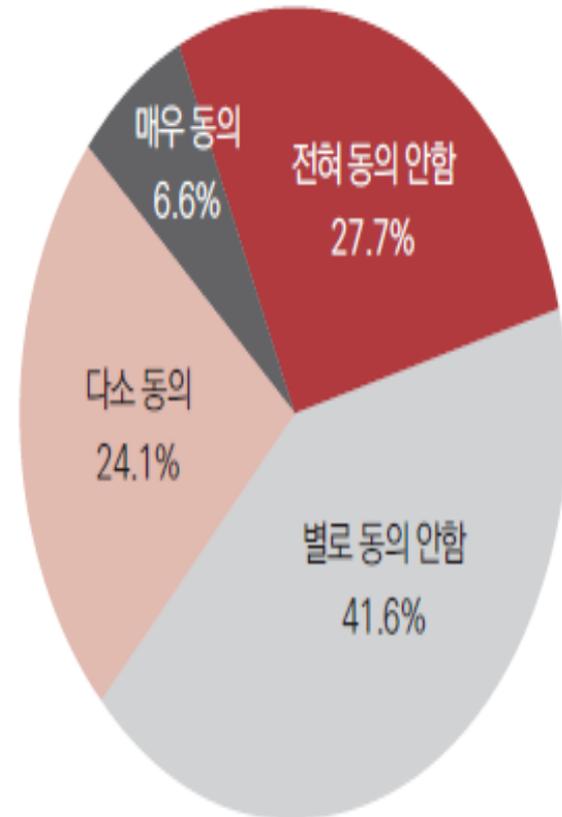


중국인의 한국정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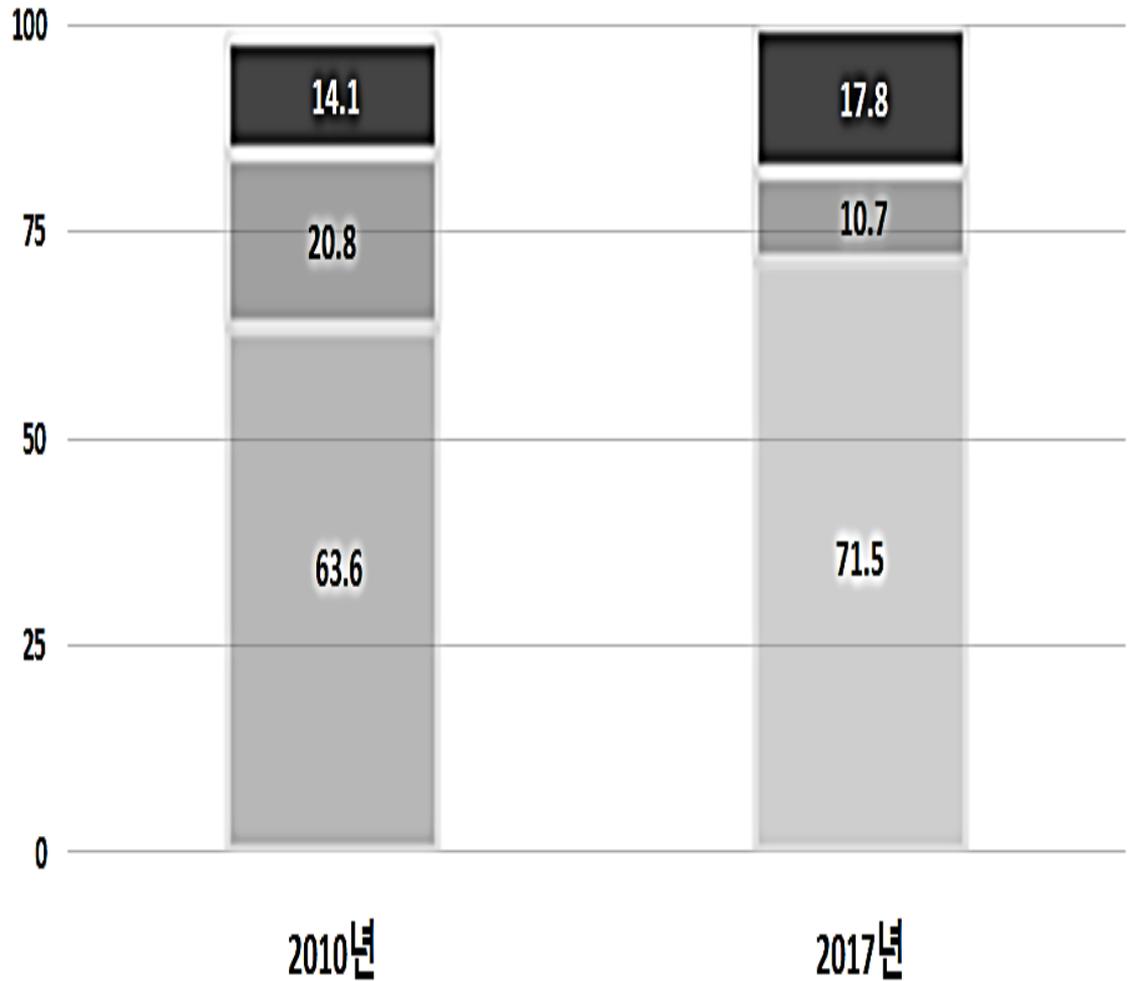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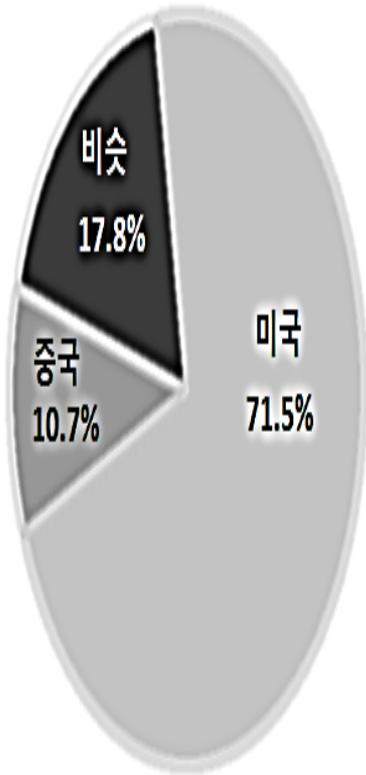
질문: 한국은 민주화 수준이 높다



질문: 한국은 정치 환경이 안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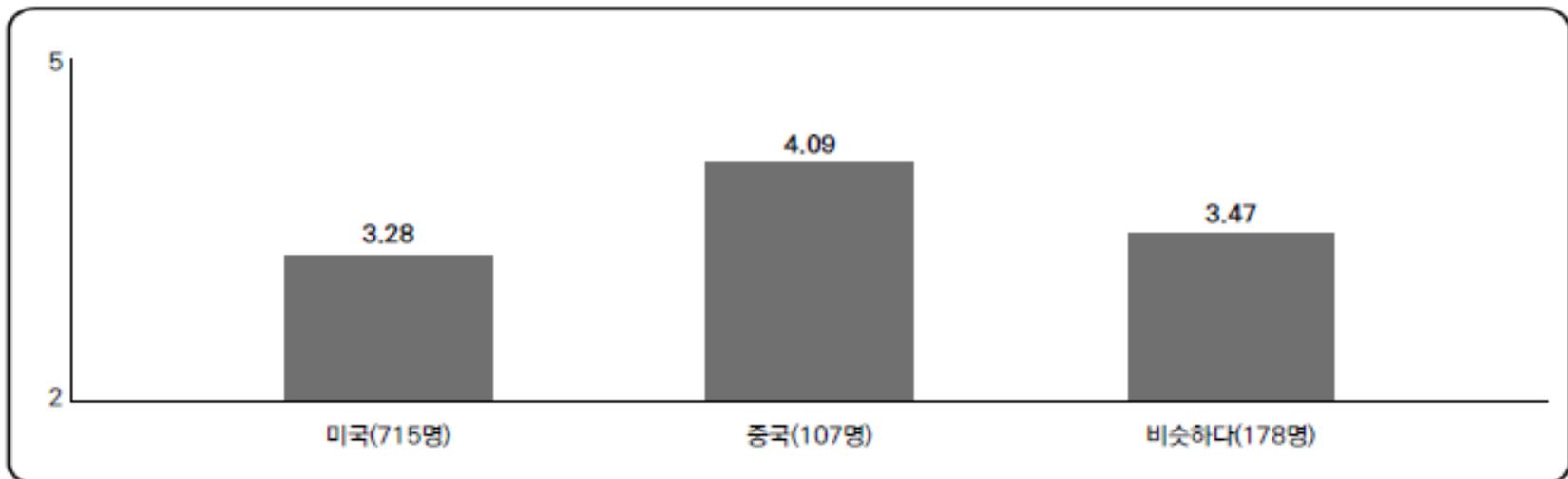
한국이 미중 가운데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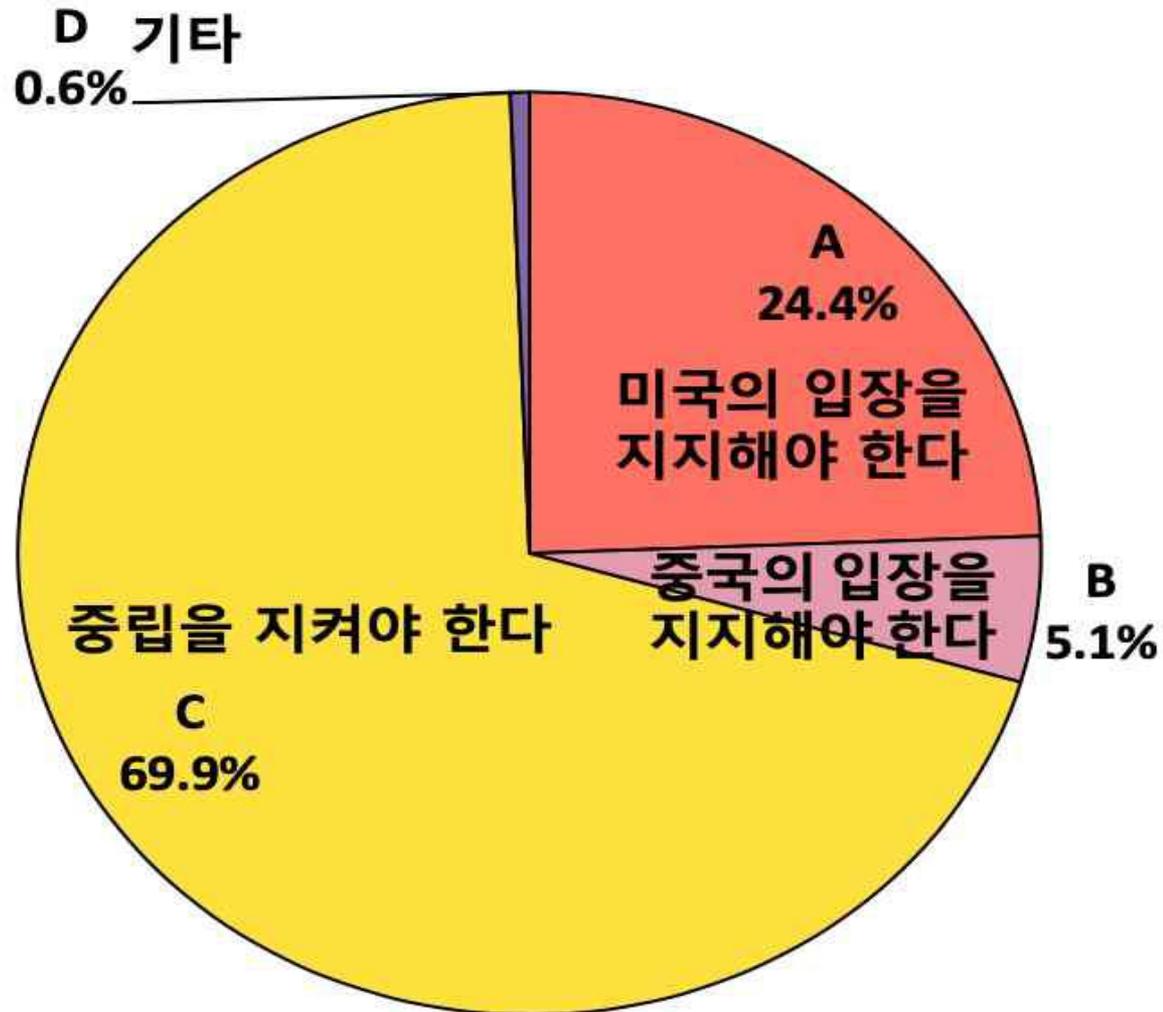
한국의 대미 경사 경계

- ▶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과 더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음
 - 미국 (71.5%)대 중국 (10.7%)으로 조사
- ▶ 한국이 미국과 유사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부정적
 - 미국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한국 호감도(3.28)보다 중국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한국 호감도(4.09)가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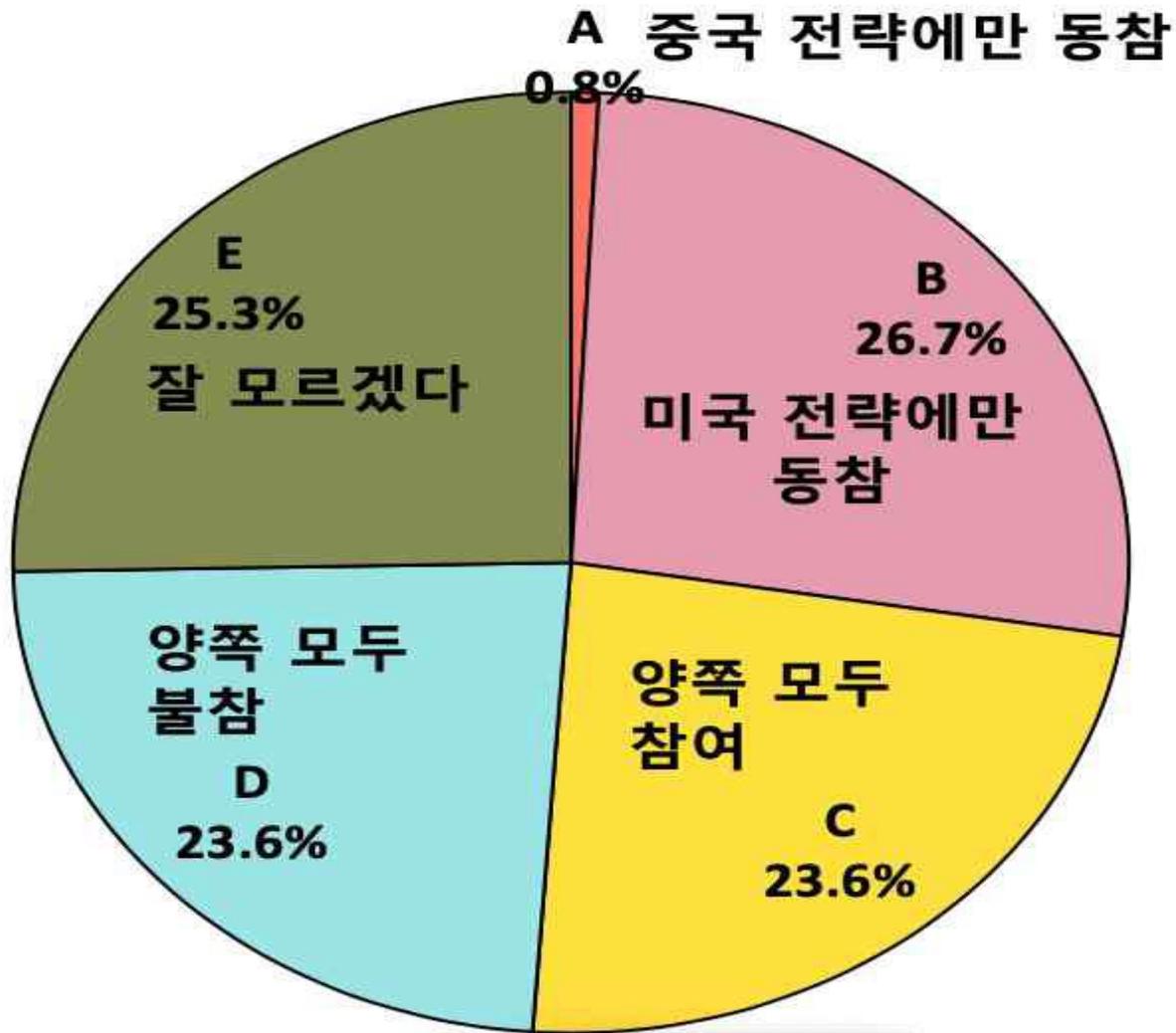
〈그림Ⅳ-5〉 한국이 미국과 유사한지 중국과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에 따른 한국 호감도



미중 갈등시 한국의 선택



FOIP 와 BRI 충돌시 한국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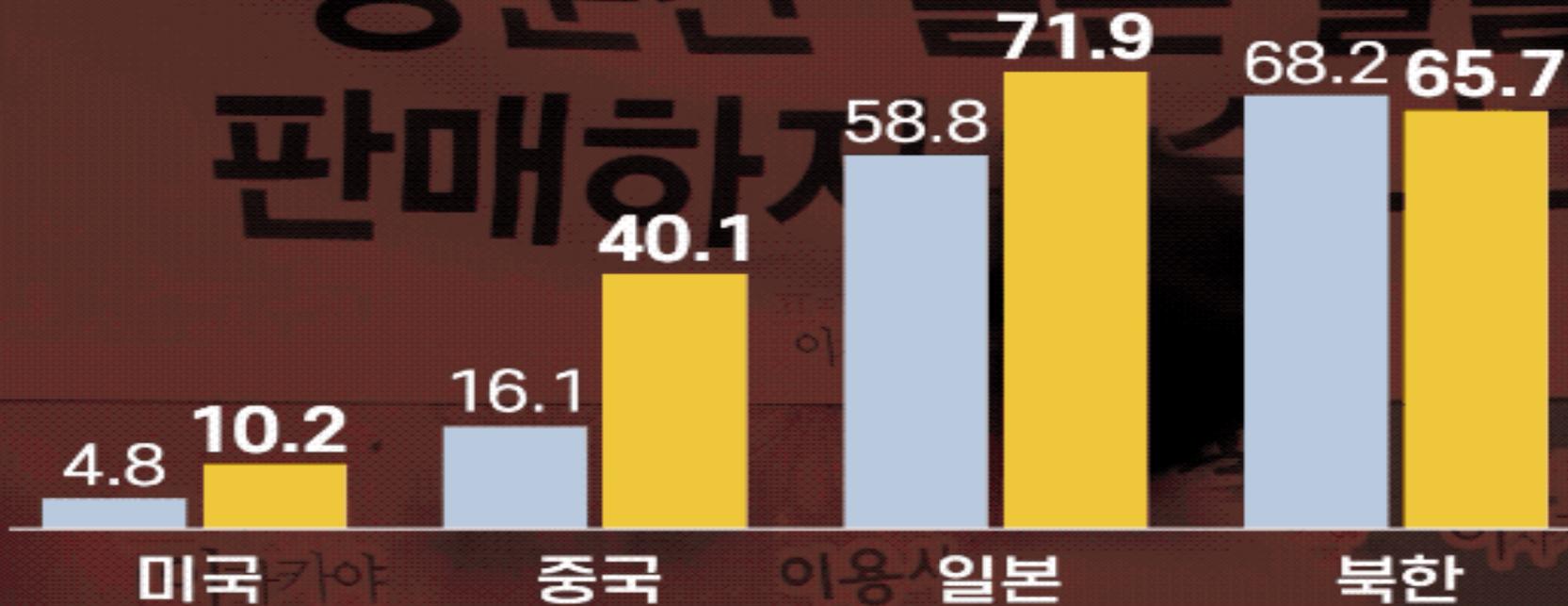


2020 한국인의 정체성 단위:%

주변국에 대한 적대감 '적대적 감정'이라고 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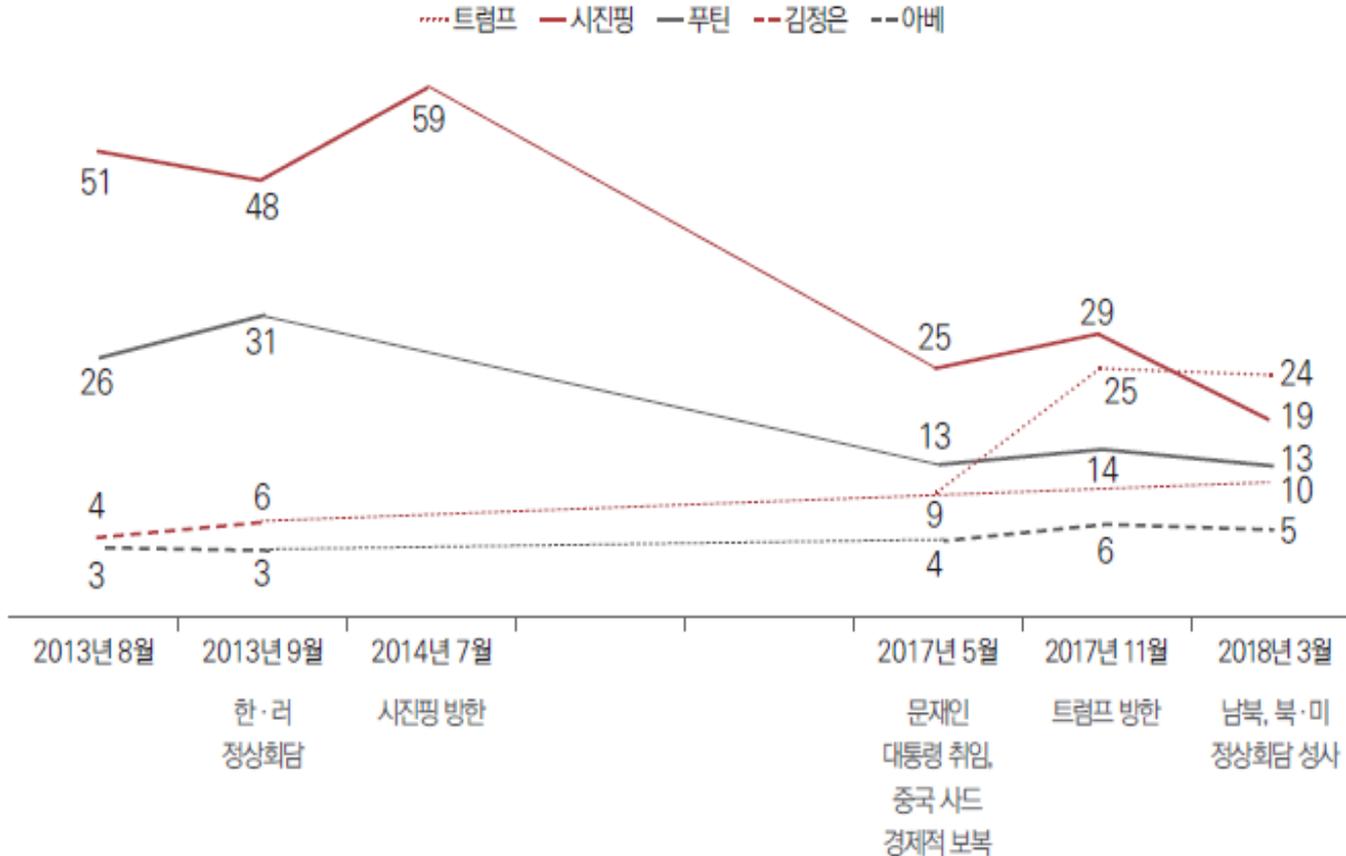
● 2015년

● 2020년



〈그림 1〉 한국인의 주변국 정상 호감도

(단위: %)



※ 2013년 8·9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 71%.

※ '호감이 간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 각 시점 전국 성인 1,000명 이상 전화 조사.

자료: "대북 인식, 주변국 정상 호감도," 『데일리 오피니언』 제298호(2018년 3월 2주).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사드사태 등 중국의 경제보복 때문에

60.7%

일당지배체제이기 때문에

17.7%

역사 갈등이 있기 때문에

12.2%

한국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41.0%

중국 정치지도자의 언행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3.4%

군사적 위협 때문에

12.2%

증화민족주의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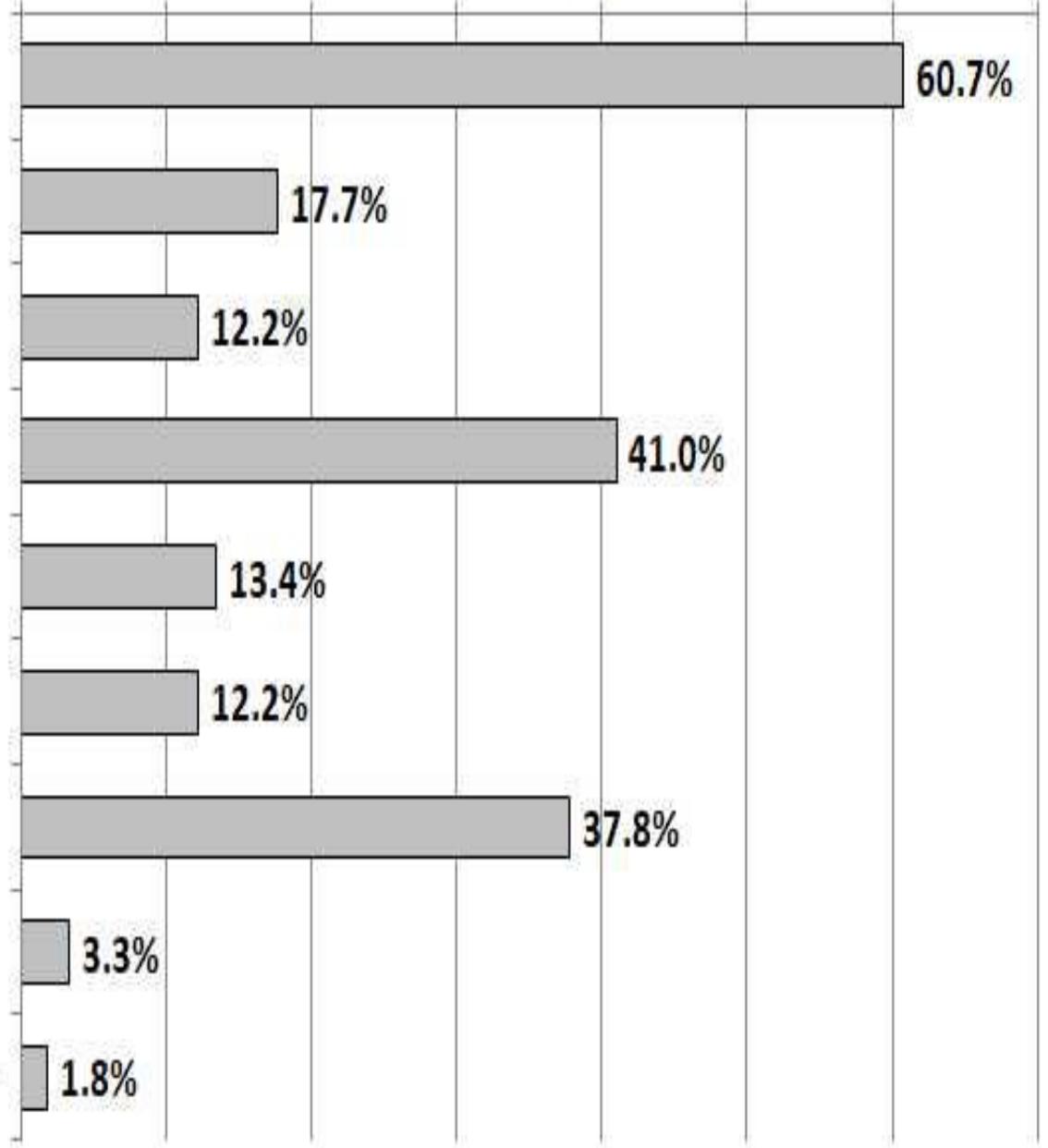
37.8%

미중분쟁 때문에

3.3%

기타

1.8%



사드사태 등 중국의 경제보복 때문에

일당지배체제이기 때문에

역사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중국 정치지도자의 언행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 때문에

증화민족주의 때문에

미중분쟁 때문에

기타

중국의 한반도 정책

- ✓ **중국 부상, 체제안정의 환경조성:**
 - 한반도의 안정(평화)/영향력 모색, Two Korea 정책기조
- ✓ **최대목표:** 중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운명공동체)형성에 참여 유도
- ✓ **최소목표:** 미국중심의 반(反)중국 연대 동참 저(한미일 동맹경계)
- ✓ **한반도 통일:** 자주적, 점진적, 평화적 통일 지지
 -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식

한국의 대중외교와 한중관계 과제

✓ 양자차원의 내실화

- 고위급 전략대화의 실질화, 외생 변수의 영향 관리

✓ 양국관계의 Fundamental 강화

- 국민정서 관리
- 상호이해증진, 착시, 왜곡, 과잉기대 경계

✓ 북한(핵)문제에서의 '중국역할' 의 재설정

- 중국역할의 과잉 기대, 의도적 무시 모두 경계

✓ 미,중, 북한을 병행 고려하는 전략 구상

- 미중 사이 선택의 딜레마 회피의 복합전략
- 미중 경쟁 소환의 우를 관리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 ✓ 북·중 관계: 혈맹관계? 전통 우호관계? 정상국가관계?
- ✓ 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 부담? 전략적 자산?
- ✓ 중국의 대북 영향력 실체?
- ✓ 중국의 북핵 정책: 비핵화? 북한체제의 유지, 안정화?

중국 대북정책은 변화했는가?

- 불변 요소: 지정학적 위치, 지정학적 전략 가치는 상수, 비중의 변화
-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는 대미외교의 종속변수로 유동적 속성

❖ 변화의 측면

- 중국의 북한 인식의 변화, 정상국가관계로의 전환

❖ 변화의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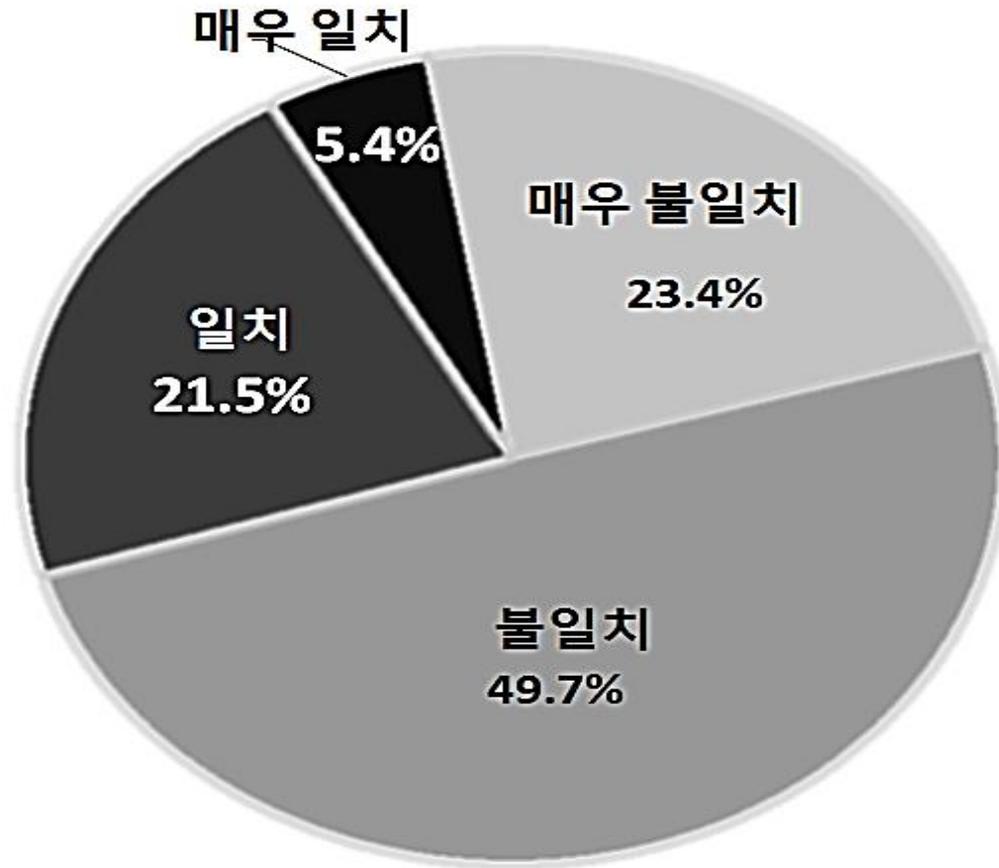
- 북중관계의 역사적 관성: 인식과 정책 변화의 시차 발생
- 중국의 대북정책의 구조적 영향
- 중국의 주변외교, 대미정책과 미중관계, 한반도의 불확실성
- 전략적 자산 vs 부담 의 비중 유동적

중국의 대북 전략

- ✓ **북핵 문제의 장기적 관리**
 - ❖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서의 중국 역할의 한계
 - ❖ 대화를 통한 안보 불안 요소의 관리
 - ❖ 북한문제로 인한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견제

- ✓ **중국식 개혁 개방 모델 이식, 친 중국의 북한체제로 정착륙**
 - ❖ 북한변수의 부담 및 불안정성 축소
 - ❖ 한반도에서의 입지 및 영향력 강화
 - ❖ 미국과의 세력 경쟁 가능성 대비

한중의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



중국의 북핵 정책

❖ 공식적 원칙: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 실질적 정책 목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친중 정권 하의 북한체제의 안정적 유지'

❖ 현실적 딜레마: 비핵화와 친중 북한체제 유지 사이의 양자택일

❖ 선택의 기준: 중국 부상의 유리한 환경 조성

❖ 현재 북한체제의 유지 선택: 안보불안 요인해소 및 대미 전략카드

- 6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제재 참여: **"제재의 목적은 대화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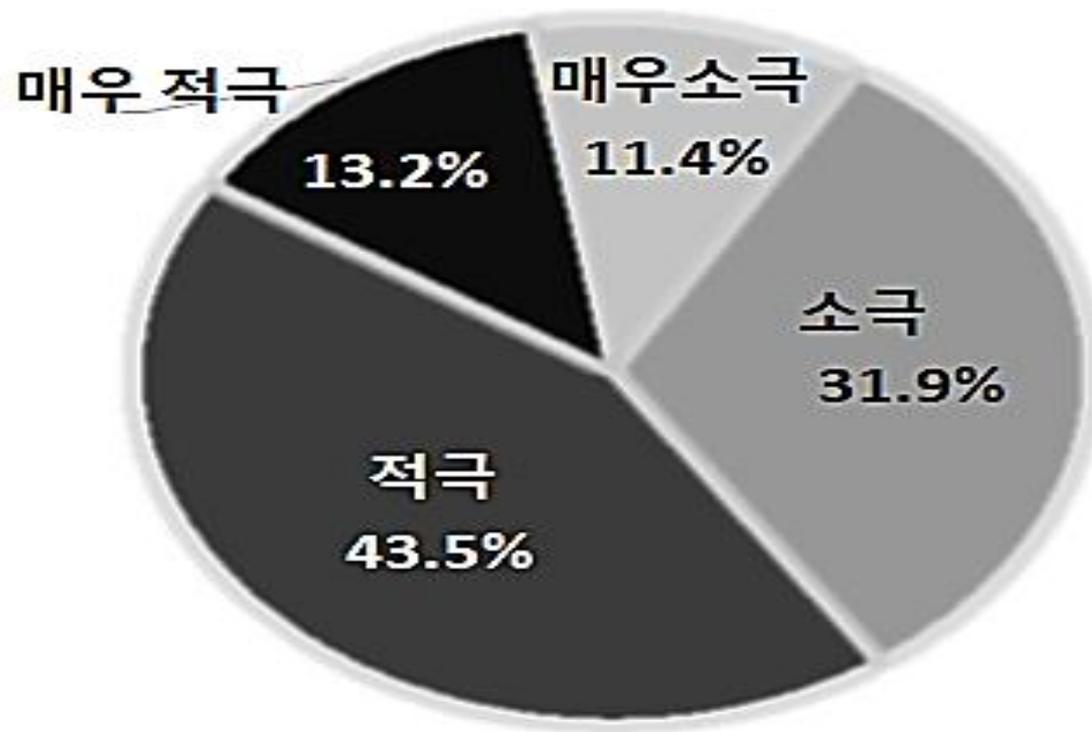
중국의 북핵 문제 '역할' 추이

- ❖ 1992년 이후 점진적 역할 확대:
- ✓ 방관자, 막후 조정자, 조용한 역할(1993, 북한 NPT 탈퇴선언)
- ✓ 3자 및 6자회담 주최(2003, 2차 북핵 위기, **부시 정부 이라크 공격**)
- ✓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참여(2006, 1차 북핵 실험)
- ✓ 미 중 북핵 책임론 공방, '쌍중단(雙中斷)' '쌍궤병행(雙軌並行)' 제의 (2016, 4차 북핵실험 이후)
- ✓ 고강도 실질적 대북 제재 참여 (2017, 6차 북핵실험, **트럼프 정부 '코 피전략' 논의**)
- ✓ China Passing 논란 (2018년 남북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 ✓ 북정정상회담 7년만의 재개 (10개월 4차례 김정은 방중)
- ✓ - " 건설적 역할, 오랜 시간 소요, 인내심, 점진적 추진," (2019.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후)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 ❖ 강력한 대북 수단과 영향력 확보:
 - 최대 교역국, 원유 및 식량 공급
- ❖ 영향력 수단의 제한적 사용:
 - 영향력 수단과 대북 정책기조와의 괴리
 - 북한의 대중 의존도 증가의 역설
 - 대북 압박의 효과에 대한 불확신
 - 미국에 대한 전략적 불신
- ❖ 수단의 보유 자체를 영향력으로 활용
- ❖ 위기관리와 대화재개를 위한 영향력 사용

중국의 한반도문제 개입에 대한 인식



중국의 한반도 통일 입장

❖ 중국의 공식입장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한 평화적 통일 지지”

- 사실상 한반도 현상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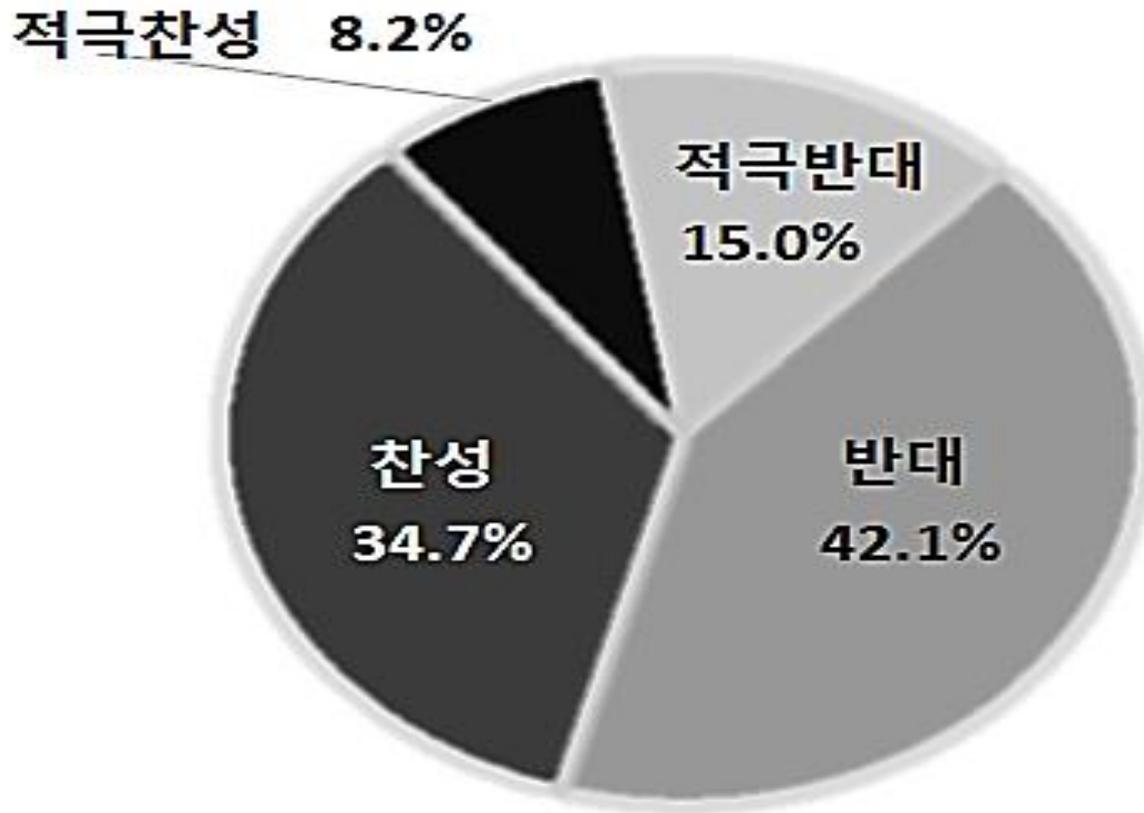
❖ 중국의 의도

- 남북한 당사자: 미국, 일본의 개입과 영향력 배제
- 협상을 통한 평화적 통일: 북한 붕괴, 흡수통일 반대

❖ 중국의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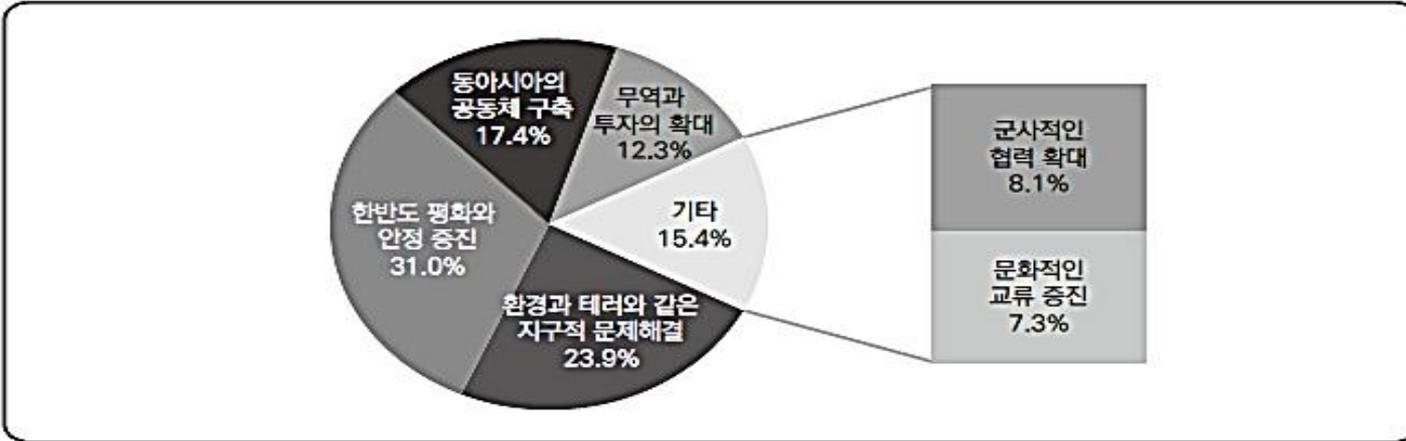
- 남북한 균형외교, 한반도의 안정화
- Two korea 정책을 통한 한반도의 현상유지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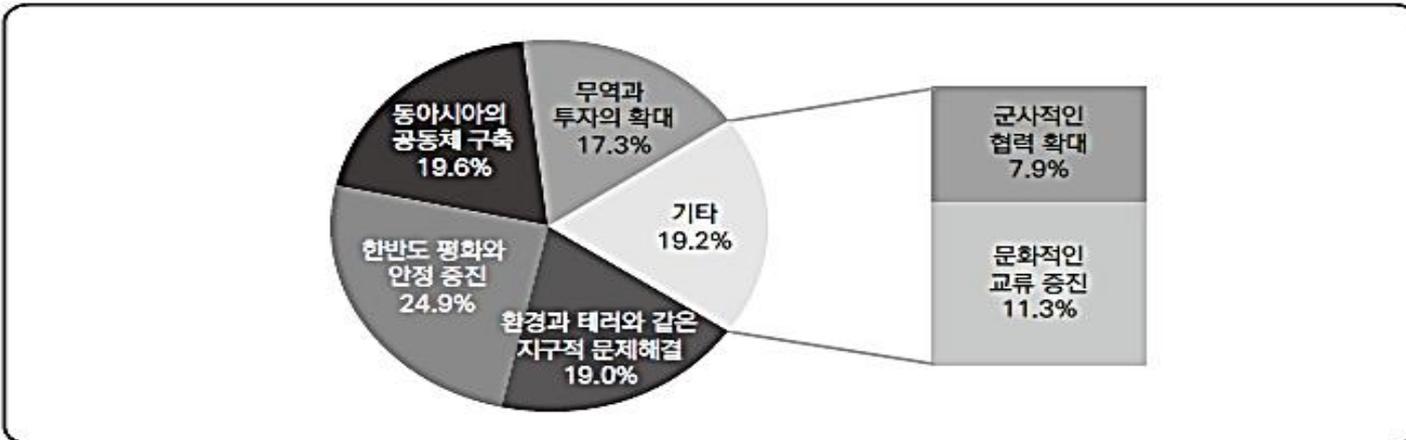


한중 협력이 필요한 분야

〈그림 III-94〉 한국과의 협력 필요 분야: 1순위



〈그림 III-95〉 한국과의 협력 필요 분야: 1순위 + 2순위



한국 외교의 딜레마와 선택

- 미중간 '대리경쟁' 심화와 한국의 딜레마
 - 안미경중(安美經中) ? 東家宿西家食 ?
- 중미관계 기복의 한반도 영향 최소화
- 한국의 독자적 전략가치 생산
- 존중 받는 한국: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회복
- 북핵문제 해결의 중국역할론 재평가: 한국의 navigator 역할
- beyond 강대국 외교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소다자주의(한중일, 한미중, 한중러 등) 확대
-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
- 외교의 전략성과 독자성 강화: 국내정치의 영향 최소화

한국의 '중견국 힘' 발휘의 제약

- **지정학적 특수성**
 -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점
 - 미국의 창(矛), 중국의 방패(循)
 - 중국의 민감한 변경 지역
- **한반도의 분단**
 - 남남 갈등(친미 vs 친중), 통일 과제
- **북한 및 북핵 문제**
 - 압박은 중국, 포용은 미국에 의존

THANK YOU
ANY QUESTIONS?